



2023년 제2차

연구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

2023. 11. 24.

연구기획실

목 차

I . 회의 개요	3
-----------	---

II . 연구자문위원회 주요 내용	4
--------------------	---

1

회의 개요

□ 개최 개요

○ 일시/장소 : 11월 23일(목) 오후 2시, 서울연구원 중회의실

○ 참석자 : 총 12명

원내(5명): 부원장, 미래융합전략실장 등

원외(7명): 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7인

○ 연구자문위원 참석자

※ 가나다 순

분야	경제	정치·행정	교통	환경	도시	기술*	계
	2	1	1	1	1	1	7
참석자	강석구 박진	나태준	박은미	최윤수	지규현	조재열	-

*신규 위원

○ 회의 순서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~14:10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사말 연구자문위원 신규위원 소개 	서울연구원 부원장
14:10~14:20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통합연구원 소개 및 통합에 따른 변동사항 발표 	미래융합전략실장
14:20~15:50 (9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통합 연구원의 역할 및 운영 차년도 연구 수행방식에 대한 자문 	참석자 전원 자문위원 당 8~10분
15:50~16:00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자문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및 일정 공유 등 폐회 	서울연구원 부원장

* 회의시간 및 순서는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자문 요청사항

○ 통합 연구원의 역할 및 운영, 연구 수행방식에 대한 자문

기관 통합, 조직 개편 등 연구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합 연구원의 역할 및 운영

개선 방향, 새로운 조직 문화 형성에 대한 자문

융복합 연구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개혁 방안 자문

2

주요 내용

□ 연구원 역할 및 운영

- 규모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필요(나태준, 강석구, 박진)
 - 지방연구원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자체 연구원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
 - 국제도시 서울의 노하우를 지방과 나눌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
 -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색을 통해 시너지 효과 기대
 - 드물게 인문계와 이공계가 합쳐진 연구기관. 통합을 기회로 연구 기반을 넓혀주길 기대
- 인력 규모를 활용한 기관 간 협업 등 경쟁력 강화 필요(최윤수)
 - 확대된 인력 규모를 활용하여 투출기관 간 협업 가능
 - 시립대 강의, 사의회 파견 등 협업 방안 모색 필요
- 통합 기관의 조직문화 형성 중요(나태준, 박진)
 - 조직문화는 기관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부분임
 - 한자봉 두가족이 되지 않도록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구성원 혼합 필요
 - 기존 조직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면 조직 융화 어려움
 - 두 조직의 문화가 합쳐지면, 좋은 문화보다 나쁜 문화가 유지되기 쉬우므로 좋은 문화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
- 조직 운영 효율화, 활력 제고 방안 모색 필요(강석구)
 - 서울연구원의 경쟁자가 누구인가? 정책연구의 수요자는 누구인가? 근원적 질문이 조직 활력 제고 및 혁신에 도움이 됨
 - 정책연구 수요자, 수혜자에게 외닿는 연구를 많이 수행하여 성과를 널리 확산할 필요

□ 연구 수행 방식

- 융복합 연구 활성화 방안(나태준, 지규현, 박진)
 - 통합을 통해 추가된 기술연구 기능이 기존의 정책연구 기능과 합쳐져서 기술의 정책 활용 측면에 대한 고민 필요
 - ‘서울시민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에 초점을 맞출 필요

- 미래융합전략실을 통한 Top-Down 방식의 융복합 연구 수행 중요
 - 서울연구기술연의 융복합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, 본부간 / 본부내 / 연구실간 융복합도 필요
- 융복합 연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
 - 단순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을 혼합 구성하는 것은 복합연구임. 복합에 그치지 않고 융합에 이를 필요
 - 융복합 지원 예산 마련, 평가권 강화를 통한 보상체계 구축 등 융복합 연구 활성화 필요

○ 빅데이터 적극 활용 필요(나태준, 박은미)

- 과제 제안 시, 빅데이터 활용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양식 개선 필요
 - 과제 수행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생성·축적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 필요
- 기존의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빅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

○ 기후변화, 탄소중립 부서 활용성 제고 필요(나태준, 강석구)

-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와 관련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문사회계열 연구인력과 함께 TF 등의 형태로 관련 연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
- 서울연구원이 기후변화,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이나 교통 부분이라 생각함. 풍부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외부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필요

□ 연구 의제

○ 서울의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(최윤수, 강석구)

- 보행 친화적인 가로 환경 조성을 통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필요

○ 인구문제 관련 연구(강석구, 최윤수)

-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.7 수준이며, 서울은 0.4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.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국가적 관점에서 서울연구원이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할 필요
- 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

○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관련 연구(최윤수)

-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서울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

○ 지방 상생 관련 연구(강석구, 최윤수)

- 기업들이 혁신성 추구를 위해 서울로 R&D 센터를 이전하고 있는 상황. 서울의 혁신 기능을 지방과 나눌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
- 우수 인재의 서울 밀집을 해소하여 지방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

○ 주택 분야 융복합 연구(지규현)

- 서울시 현안 문제 중 주택 분야 이슈가 많은데, 주택 관련 연구진 수는 부족한 느낌
- 주택 분야는 경제경영 또는 도시사회와 융복합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 스마트시티, IoT 등 디지털 기술 분야도 융합 가능
 - 주거혁신연구단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서와 융복합 연구 수행 필요

□ 향후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관련

- 이르면 내년 2월경 다시 회의 개최 예정
- 대표기획과제, 정책·기초과제 수행 현황 공유하고, 하반기에 보완할 부분에 대한 논의 자료 마련 예정